

‘치유 · 공감’ 전주시 인문주간 개최

아중호수도서관서 개막식 · 인문 콘서트 열려… 17일까지 총 30개 인문학 강좌 · 세미나 진행

전주시가 아중호수도서관에서 펼쳐진 음악과 인문학이 결합된 인문학 특강과 콘서트를 시작으로 5일간의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4일 아중호수도서관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과 치유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의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방수미 소리꾼이 강사로 초청돼 'K-관과 K-팝으로 만나는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판소리의 깊은 서사와 K-pop의 대중적 감각을 재해석한 인문학 특강을 펼쳤다.

특강 이후 이어진 인문콘서트에서는 인문밴드 레이도 참여해 대중음악과 판소리를 결합한 새로운 인문학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5일 동안 이어지는 올해 인문주



전주시는 지난 14일 아중호수도서관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과 치유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의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

간에서는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뮤지컬로 만나는 치유인문학'을 비롯해 전주시작은도서관과 동네 백방 등에서 30개의 인문학 강좌 및

세미나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인문주간 둘째 날인 15일에는 오후 7시부터 '나의 원발'의 작가인 김미옥 평론가와 박지은 소설가, 김승

일 시인, 하서찬 · 강운미 작가 등 6인의 작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실패 인문학' 여섯 작가의 인생분투기를 주제로 한 기획인문강좌가 전주 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획 강좌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 작가와 독자의 대화, 낭독과 강연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져 인문주간 주제인 치유와 공감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주시 인문주간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에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전주시 평생학습과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지만, 이번 인문주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다시 이웃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혁신동 골목상권 드림축제 개최

전주시, 18일 체험 · 공연 · 경품 이벤트 등 다채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골목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비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4시, 혁신동 시계탑 광장에서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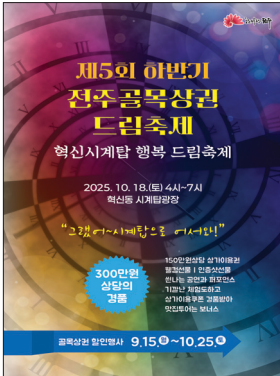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의 발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와 체험, 문화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계탑 상가변영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율 참여형 소비촉진 행사로, 공연과 체험, 경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의 유입을 유도하고 상권의 자생력 회복을 꾀하게 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색소폰 · 하프 공연 △워킹 △캘리그래피 △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20여 개의 공연, 체험 행사가 추진되며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상품권과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지역 상권과 시민, 행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생의 메시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는 전문 MC의 사회와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방



문객을 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혁신동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은 물론,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혁신동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단순히 하루 즐기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상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완주 · 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 전개

주민투표 앞두고 접경지서 진행

완주 · 전주 통합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권고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나섰다.

전주시와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갑)는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15일 전주와 완주 접경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완주 · 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호남제일문 사거리와 옛 송천역 사거리, 차량등록과 사거리, 호성네거리 등 통근 차량이 많은 교통 거점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



전주시와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15일 전주와 완주 접경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완주 · 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 회원 등 100여 명과 함께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통합의 효과와 비전을 홍보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완주와 전주가 행정구역을 넘어 경제 · 생활권으로 이미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이 대안법 개정 등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기회를 더 잘 살리고, 통합시가 전북권의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꾸준히 시민사회에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 하면 전북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 이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미래세대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운영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15일 자원순환교육의 일환으로 인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달 18일 시작돼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특히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접수는 시작 이틀 만에 모든 회차가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전주권 광역소각지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시설을 둘러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다. /권희성 기자



학생들은 견학 현장에서 냄새와 소리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실제 시설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물론, 전주시니어클럽 소속 환경강사들의 친절함 설명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으로,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추가 운영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일본 가나자와시의회에 전주 소개 도서 전달

전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일본 가나자와시 우미미라이 도서관에서 자매도시 교류 사업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도시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문화 ·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전주지역을 소개하는 역사 · 문화 도서와 관광 홍보 자료 등을 전달했다.



남관우 의장은 "도시는 문화로 이어지고, 책은 그 문화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다리"라며 "도서 교류가 양 도시 시민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역량 강화 훈련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15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 정확한 대응을 위해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훈련으로, 전주시보건소와 전북특별자치도, 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찰, 소방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생물테러 감염병의 이해 및 초동 조치 교육 △개인보호구

교육 및 착 · 탈의 실습 △다중탐지기 트 검사 및 검체 이송훈련 등 실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생물테러 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극미량의 병원체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특히 은닉 · 살포가 쉽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상시 대비 ·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